

전북도·도내 정치권과 삼각공조 이뤄

국 토교통부가 5년마다 추진하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에 완주군의 최대현안인 수소특화 국가산단 이 포함돼, 향후 탄력적인 추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선 8기 유희태 군정이 출범 8개월여 만에 최고의 성과를 올린 과정에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과 균형발전에 맞춰 전북도·정치권과 긴밀한 공조와 협치의 발걸음을 옮기는 고도의 전략적 접근이 숨어 있다는 각계의 분석이다. 특히 유희태 군수는 새로운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만큼 취지에 맞는 '정책 부합성'과 '미래 지향성'을 고려해 신속 대응에 나섰고 이것이 적중했다는 후문이다.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선정의 과정에 배경을 살펴본다.

▲민선 8기부터 본격화

정부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은 민선 8기가 출범한 작년 9월부터 본격화했다. 국토부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과 인구를 분산하는 등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게 전국 지자체들의 경쟁을 촉발한 시발점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수소특화 국가산단(전북), 해양플랜트 국가산단(경남), 국가 차세대 원자력연구개발 거점 및 국가산단(경북), 메가시티 상생협력 국가산단(충청권) 등을 조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가산단 등의 산업단지 개발현황을 우선 분석하고, 지역에서 건의한 국가산단 조성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

토지구획 현황, 입지, 상위 개발계획 등과의 적합성을 분석하고 산업 성장 전망, 정부·지자체 지원정책 등 사업성도 꼼꼼히 들여다봤다는 후문이다.

완주군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공약으로 반영하기 위해 1차적인 노력을 기울인 데 이어,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국토부 용역에 맞춰 신속대응에 나섰다.

▲행정·정치권 공조의 합작품

수소특화 국가산단 선정은 완주군의 간절한 소망과 행정·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유희태 군수는 "취임 이후 지난 8개월여 동안 단 하루도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생각하지 않은 때가 없었다"고 말했다.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를 구현하기 위해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이 꼭 필요한 만큼 중앙부처는 물론 정파를 가리지 않고 중앙 정치권을 찾아가 끊임없이 설득하고 건의했다.

유 군수는 수시로 수소신산업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휘력을 발휘했는가 하면 간부회의 석상에서 지속적으로 수소특화 국가산단 동향파악을 언급하며 군정의 역량을 총결집해왔다.

테크노밸리 제2산단의 미분양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입체적 대응에 나서 고비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다는 후문이다.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등 전북 국회의원들도 수소특화 국가산단 선정의 필요성을 국토부에 강하게 전달하는 등 힘을 모아 주었다.

김 지사는 새만금 그린수소와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이 연계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를 통한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로 국토부를 설득하는 등 최일선에 나섰고, 안 의원과 정 의원의도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평을 받는다.

이밖에 서남용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회에서도 국가산단 촉구 결의문 채택과 국회 방문 등을 통해 힘을 거들었다.

▲호랑이가 날개를 달다

수소특화 국가산단 선정은 완주군 역사상 첫 국가산단이라는 새로운 출발점의 의미가 크다. 완주군은 그동안 1994년 완주산단(335만9000㎡) 조성 이후 과학산단과 테크노 1~2산단, 농공단지 등 총 1,055만6,000㎡(320만평)를 순차적으로 추진해왔다.

기존의 6개 산단과 달리 '수소특화 국가산단'은 정부가 관리하고 지원하는 만큼 향후 추진과정과 기업유치 측면에서 속도를 빨리 할 것으로 보인다.

완주군과 전북도의 새로운 100년 먹거리를 창조할 차세대 신산업 육성의 기폭제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배놓을 수 없다. 글로벌 선진국들은 수소경제 선점을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120대 국정과제에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포함하고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다.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은 완주군과 전북도, 나아가 대한민국이 '세계 1등 수소산업'으로 나가는 데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완주군 입장에서 보면 수소산업과 관련한 생태계 구축과 전후방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완주군과 전북도의 새로운 발전적 모멘텀 확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의 든든한 디딤돌이 확보됐다는 의미도 있다. 그야말로,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달는 여호참이(如虎添翼)의 호조견 형세가 된 셈이다.

▲한해 매출 10조원 목표

국비 등 총 사업비 6,270억원을 투입해 봉동읍 일원에 165만㎡, 약 50만평 규모의 완주군 첫 국가산단을 조성하게 된다.

수소특화 국가산단의 비전은 '우리의 꿈, 세계 1등 수소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로 초격차 시대를 열다로 정해졌다. 국내에서 내노라 하는 수소 전문가를 집적화하고 수소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며, 연구개발(R&D)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큰 그림을 그리자는 취지이다. 목표는 산화연계를 통해 수소 전문기업 50개를 포함한 관련기업 100개를 유치하고, 일자리 1만개 창출, 한해 매출 10조원으로 하고 있다.

완주군은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발맞춰 △중대형 수소모빌리티 △수소저장용기 △수소



지난 16일 유희태 완주군수가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활용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완주 역사상 첫 국가산단 새로운 출발점 의미 커

수소산업 관련 생태계 구축 전후방 연관산업 육성 '마지막 퍼즐' 완성돼

한해 매출 10조원 목표 중대형 수소모빌리티 기술 고도화·관련산업 육성

수소 안전관리체계 등 지향 군 수소경제 육성 본격화



지난 15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신규 국가첨단산업 후보지 선정 관련 브리핑.

용품(수전해와 연료전지·수소추출기) 등 3가지를 중점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완주는 국내 유일의 수소상용차(현대제철차)와 수소저장용기(일진하이솔루스), 수소용품 법정검사 지원체계를 구축한 지역이자 전후방 산업을 집중 육성할 최적지이다.

이런 장점을 살려 중대형 수소모빌리티의 기술을 고도화하고 관련산업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수소 안전관리체계(Safety)와 신재생에너지 공급(ECO friendly), 스마트(Smart) 산단 조성 등 이른바 S·E·S 산단을 지향하고 있다.

완주군의 수소경제 육성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다.

완주군은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갈 '그랜드 디자인'을 그리고 정부와 전북도·수소기업들과 함께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조감도

▶유희태 군수의 포부



조기착공, 기업유치 위해 최선

"완주군의 도전, 새 출발점에서"

유희태 완주군수는 "앞으로 추진할 '수소특화 국가산단'이 조기에 착공하고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며 "수소 전문기업과 연구기관·지원시설이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군수는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에서 미래전략담당관을 신설하고 수소신산업팀을 포함해 투자유치팀, 기업지원팀, 산업단지조성팀, 민경강프로젝트팀 등을 배치했다"며 "이들 지원조직을 총 가동하고 IH 등 사업시행자과의 협의를 통해 국가산단을 조기에 완공하고 기업들을

끌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 군수는 "완주군은 수소 전문기업과 연구기관, 산업단지 등 3대 기반을 모두 갖추고 있다"며 "이런 기반을 잘 엮고 국가산단에 기업들이 꼭 차게 되면 막대한 전후방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수소특화 국가산단' 선정이 전후방 연관산업 육성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 군수는 "대한민국 수소경제 1번지를 향한 완주군의 도전은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서 있다"며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 실현을 위해 군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우보참리(牛步千里)'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